

# 「삼광 구역 공과」

일시: 2023년 5월 28일 (넷째 주일)

성경본문 : 레위기 18장 24-30절

설교제목 :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오늘은 성령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오심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나안 족속들처럼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다.(24절) ‘이 모든 일’은 앞서 열거된 가증하고, 비정상적인 성적인 행위와 우상숭배입니다.(레18:6-13)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으로 그 땅도 더러워지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악을 벌하고 그 땅도 주민들을 토하여 낼 것입니다.(25절)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였기에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러면 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까? 그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창세기 23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백이십칠 세를 살고 죽게 됩니다.(창23:1)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그녀의 시신을 묻을 땅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헷 족속에게 요구합니다. 헷 족속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요구에 자신의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사를 매장하라고 합니다.(창23:6) 이들의 호의에는 매장은 허락하나 매매는 거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땅은 너무나 귀중한 재산입니다. 아무리 친한 이웃이라 하더라도 매매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관례를 알고 있었지만, 부득불 땅을 자신에게 매매하길 간청합니다.(창23:7-9) 아브라함의 거듭되는 요구에 에브론은, 은 400세겔에 밍과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에게 매매합니다.(창23:15-16) 당시 은 400세겔은 그 땅값으로는 무척이나 큰 값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선뜻 별다른 흥정없이 그 값을 치루고 땅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굴이 막벨라 굴을 매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아브람의 자손들이 사백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다시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창15:12-16)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 때에 땅을 주시지 않고, 4백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창15:16)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때에 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차면, 반드시 자신의 후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알고 막벨라 굴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막벨라 굴을 구입한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에 정착해 있던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백성들로 인해 가나안 땅에 완전히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가나안 거민이 타락하여 가나안 땅이 모두 죄로 물들었을 때에 오직 한 곳만이 성결하였는데, 그곳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선산으로 구입한 막벨라 굴입니다. 죽은 자의 무덤만큼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민들의 죄가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가나안땅을 주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가나안 땅에서 타락하지 않는 자인데, 유일하게 거룩한 곳이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그 막벨라 무덤의 소유권을 가진 자,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유일하게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주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30절)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나안 백성들처럼 스스로 자신들을 더럽힌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가나안 백성과 동일한 운명이 될 것입니다.(26-27절)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셔서 약속의 땅에서 토하여 내셨습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즉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십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성령은 새언약의 주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행1:8) 성령이 오심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모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신 이후에 이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마태와 가롯 유다는 교육을 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교육을 받지 못한 지식없는 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인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듣는 자들이 놀랍니다. 이기적이고 자신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자 자기의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은 가나안 땅만큼이나 음란한 곳입니다. 로마의 문헌에 로마에서 처녀를 찾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온 로마 내에 음란이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그 문화를 거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제국 하에서 자신의 순결을 지켜갑니다. 따라서 로마의 귀족과 왕족들이 그리스도인의 딸을 며느리 삼습니다. 그리고 결국 300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충만하면 변화된 삶을 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성령충만으로 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연합하여 함께 머무르며 기도를 쏟아 부을 때 성령충만이 임합니다.(행1:14) 우리 공동체가 함께 머물러 기도를 쏟아부을 때 성령충만이 임합니다. 여기에 나이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성령충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성령충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은 쇠하여져도 더욱 성령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것이 성령충만입니다. 우리교회가 성령충만한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 ※.말씀 생각해 보기

- 1)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였기에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러면 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까?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시다.
- 2) 성령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시다.

####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여러분은 성령충만한 자입니까? 성령충만을 위해서 어떤 삶이 회복되어야 할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